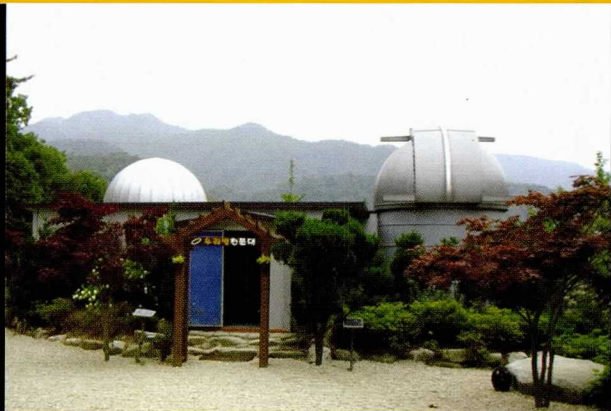


Ourstar. 별장식 천문대 우리별천문대

우리별. Ourstar. 이름 자체만으로도 친근감이 있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우리별천문대. 강원도 횡성군의 청정한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어 별을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천문대이다. 2002년 9월에 개관한 우리별천문대는 별장식 사설천문대로 100명이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천문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로 서울에서 홍천으로 이어지는 44번 국도를 타고 1시간 30분쯤 달리다 보면 원주, 횡성 방면으로 향하는 5번 국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10여 분만 가면 우리별천문대라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갈릴갈마다 이정표가 눈에 잘 띄게 설치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천문대를 찾을 수 있다. 이정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도로 아래로 원형 돔과 여러 개의 방갈로가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별천문대이다.

우리별천문대는 천문대와 숙박시설이 갖춰진 사설천문대이다. 사설천문대의 특징은 공립(시민)천문대와 다르게 숙박을 하면서 천문관측과 교육, 체험학습, 캠프 화이어, 바비큐 파티 등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연인, 단체로 찾아 추억을 만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우리별천문대는 6개의 방갈로형 숙박시설과 1개의 원형 관측 돔, 플라네타리움, 캠프 화이어장, 농구대, 자연학습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어 자연과 별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가족 단위 여행지이다.

강원도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의 광해가 없어 쏟아질 듯 한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우리별천문대에서는 새벽까지 관측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시작 시간은 있지만, 마치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방문한 관광객들이 직접 망원경을 가지고 원하는 시간만큼 밤하늘을 관측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교육 담당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별천문대는 교육담당자 1명 외에 운영과 관리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학을 비롯해 성수기에는 천문관련 동아리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하여 진행을 돕고 있다. 특히 교육담당을 맡고 있는 이화영 씨는 아마추어 천문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으로, 사설천문대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망원경 수리와 관리, 운영까지 직접 도맡아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설립된 사설천문대이다 보니 시설과 장비가 공립(시민)천문대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는 점이 다소 아쉽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이나 천문교육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사설천문대도 소속 지자체의 관광자원이어서 관광코스로 많이 소개되고는 있지만 사설이라는 성격상 지원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재정적인 지원은 힘들더라도 기타 사설천문대만의 천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천문교육 담당자 교육연수, 장비 관련 교육과 수리 연수 등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우리별천문대 직원들

